

		2월 6일	2월 13일	2월 20일	2월 27일
예배 기도	1부	정귀자	남영옥	한준지	이말자
	2부	안준조	심은영	정지영	최영란
	3부				
헌금위원		1부 : 안상문		2부 : 정상환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가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권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규),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산교회 선교 : 은혜를 누리집(김광수)

박상민 임완면·곽삼화

* 온라인현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

6.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신앙고백

찬 송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기 도 : 맑은이
말 씬 :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묵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시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3-6).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선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7-9).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려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

3.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10-11).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맺는말

일방적인 할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과 군중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적용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미자립교회(군산서수제일교회)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1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제직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4.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5.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헌물 - 하연주집사 가정에서 딸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 6호

2022. 2. 6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